

# 特許法 改正 公聽會 盛了

## 2日동안 主題發表후 열띤 討論

特許法이 대폭 改正된다.

特許廳은 지난 5月 3日 特許法 改正을 위해 特許法 改正試案을 마련, 本會등 관련 機關에 配布하고 5月 31日과 6月 1日 商工會議所 國際會議室에서 企業의 特許管理要員·辨理士·特許廳 직원·기타 관련 人士등 2백 50여명이 參席한 가운데 特許法 改正試案에 대한 公聽會를 열고 各계의 意見을 종합했다.

이번 公聽會에서는 本會 金寬衡 연수부장등 12명의 主題發表에 이어 열띤 討論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改正試案은 관련 부처의 意見조정을 거쳐 오는 9월에 열리는 定期國會에 상정될 예정이다.

### 特許法 改正의 主要方向

特許法 改正의 主要方向이 이번 公聽會에서 있는 朴弘植 特許廳長의 開會辭에서 밝혀졌다.

朴廳長은 開會辭에서 「불규칙적으로 配列되어 있는 特許法의 體制를 特許制度를 이용하는 일반국민이 누구나 알기 쉽도록 그 發生에서 消滅까지 순차적인 순서에 따르도록 全面 改正할 예정」이라고 전제하고, 「特許制度의 國際化에 부

응키 위하여 84年 8月10日PCT 加入時 유보하였던 同 條約 第2章 (國際豫備審査)의 유보를 撤回함으로써 國際出願에 있어 國際豫備審査制度를 活用할 수 있도록 하여 審査의 國際化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朴廳長은 또 「權利보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不特許사유로 하고 있는 음식물및 기호물에 대해 物質特許를 許與하고 植物特許 대상을 확대 하며, 出願人의 權益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出願人이 제출한 補正書를 審査官이 채택하지 아니하고자할 때에는 却下 처분토록하고 同 却下에 대해서도 不服할 수 있는 補正却下 不服抗告審判制度를 새로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朴廳長은 「현재는 外國出願을 근거로한 出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優先權制度를 國內特許出願을 근거로한 後出願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國內優先權制度를 새로이 채택하여 出願人의 權益을 신장토록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이 밖에도 모든 不合理한 制度를 改善하여 현대화된 法습으로서 손색이 없는 改善案을 作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公聽會의 日程은 다음

과 같다.

### 公聽會 日程

5月 31日

14:00—14:15 開會式

○國民儀禮

○開會辭

(特許廳長)

○人事말씀 (大韓 辨理士會 會長)

14:15—14:50 改正案 說明 (金영화 審判所長)

14:50—16:00 主題發表

○李기수

(高大교수)

○李준구(辨理士)

○李범일(辨理士)

16:10—18:00 主題發表

○申석균 (韓國發明學會會長)

○李한호 (三星電子 特許部長)

○金관형 (韓國發明特許協會 研修部長)

6月 1日

14:00—15:40 主題發表

○鄭갑백 (味元食品(株) 研究開發室 部長)

○金정옥 (韓國食品開發研究院 企劃開發室長)

○金성택(辨理士)

○李종완(辨理士)

15:50—16:50 主題發表

○李기주(辨理士)

○朴중만 (同和藥品 開發部次長)

16:50—18:00 질의답변 (金영화 特許廳 審判所長) <○>